

- 이름: 박한솔
- 근무기구 및 부서: UNHCR 몬테네그로 사무소 및 알바니아 사무소 법무부 (Protection)
- 직위: Associate Protection Officer (P2)
- 지원 경로: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주관 2015 년 UNV 전문봉사단 합격
- 근무 기간: 2015.11.09.~2016.07.17. (몬테네그로 사무소)
2016.07.18.~2016.11.08 (알바니아 사무소)

1. 2015 년 유럽 난민사태의 소용돌이 속으로

2015 년 여름 즈음, 유엔난민기구(UNHCR)의 인턴십을 마치고 본부를 통해 네팔 사무소로 6 개월간의 단기 파견(temporary assignment)을 갔다 온 나는 유럽에서 난민을 도울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견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시리아 내전의 영향을 받아 유럽으로 밀려드는 난민 유입상황에 난민이 아닌 이주민도 합세하여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었고, 나는 네팔 난민 캠프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경험과 제네바 본부에서 국제법, 유럽법을 다루는 법무부 인턴십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에서의 난민 보호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다.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인도주의적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TV 를 보던 때와는 사뭇 다른 감정이 치솟았다. 꿈을 이룬다는 목표 하나로 국제법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기초 경력을 쌓았으니 이제 나에게 TV 속의 난민 상황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프로의 세계가 된 것이다.

때마침 난민 유입 상황에 일손이 부족했던 모양인 유엔난민기구 몬테네그로 사무소가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주관 2015 년 UNV 전문봉사단 목록에 뒀고, 나는 주저 없이 지원했다.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었던 나는 유엔 몬테네그로 홈페이지 및 관련 서적을 읽으며 사무소 업무를 철저히 외웠다. 그리고 10 월, 대량난민사태와 응급상황에 대한 현장 경험과 이론지식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면접을 거쳐 나는 유엔 전문봉사단으로 합격하게 되었다.

2015 년 11 월에 파견 나간 나는 첫날부터 대량난민 유입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고, 그 후 겨우내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난민들을 만나게 되었다. 세르비아 등의 다른 발칸 유럽 국가에 비하면 몬테네그로에 유입되는 난민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내게는 이때 그들과 소통하며 얻은 경험이 일로나 삶 적으로나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다. 먹을 것 마실 것 없이 굶주리며 겨울 여행길에 오르는데도 병든 노부모를 끝끝내 짊어지고 가던 일가족, 내전으로 모든 일가족을 차가운 땅속에 묻고 일생 모아온 저금으로 삶의 마지막 기회를 노리려 유럽으로 향한다던 청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돌산을 오르며 깨진 손톱으로 안쓰럽게 앉아있으면서도 고향에서 자주 마시던 차 한 잔 떠올리면 미소를 짓던 사람들. 그들이 하루하루 견디며 살려내는 희망의 불씨는 매일 나 자신을 돌이켜보게 했다. 일하면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자주 생각났다. 할머니는 피난길에 오르며 겪은 갖은 고생 이야기를 곧잘 하셨는데, 굶은 날씨에 계속되는 행군으로 발목을 접질린 후 병원을 찾을 수 없어서 평생 다리를 절게 되셨다고 했다. 그때 난민기구가 한국에 있었다면, 난민법이 보장되어 있었다면 할머니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많은 난민이 유럽이 국제난민법의 최초 발상지이며 그들의 인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향하는 듯했다. 중간중간 난민이 아닌 이주민들도 보였지만, 나는 난민의 지위가 적합한 사람에게만 부여되어야 난민의 사회적 입지도 공고할 것이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국경의 관리가 장기적으로 순수한 난민의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한다. 유엔난민기구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현지 정부와 함께 올바른 난민의 지위 인정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난민유입과 안보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거듭되던 2016 년 초, 유럽연합은 난민 및 이주민의 대거 유입을 제약하기로 결정했다. 몬테네그로에 파견된 지 얼마 안 되어 일어났던 파리 테러 사건 이후로 안보문제가 주목받던 시점이었다. 국제난민법에 의하면 테러 및 기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절대로 난민의 지위를 받을 수 없게 되어있지만, 국가안보에 대한 유럽사회의 불안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었다. 유럽연합에게도 유엔에게도 중요한 시기가 점차 다가오는 듯했다.

2. 국적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 구 유고연방 그 후

유럽연합의 결정에 따라 이윽고 몬테네그로로 들어오는 난민의 수도 급감했다. 파견된 지 4 개월도 되지 않아 난민유입이 사실상 정지되자 몬테네그로 사무소에서 맡는 업무도 변하게 되었다. 나는 전공을 살려서 현지 난민법 개정에 대한 법률 제안을 하거나

구유고슬라비아 연방 국가 출신 난민 및 무국적 상황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현지 상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제네바 본부에 있는 법무부서의 베테랑 직원들이 조금 더 보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내가 연구결과물을 다듬어내는 방식이었다.

난민을 만나는 횟수가 적어지고 연구에 몰두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가끔 가슴 뛰는 현장 경험이 그리웠지만, 난민 유입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구 유고연방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 사무소 크기를 차츰차츰 줄여가는 사정이었던 몬테네그로 사무소에서 일거리를 챙겨 받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고, 본부의 베테랑 직원들에게서 받는 조언들은 학문적으로나 일로나 무척 소중한 부분이었다. 지난 후 돌이켜보면 이 기간이 천천히 공을 들여 나의 전문성을 다듬는 시간이었다. 처음에 의도했던 일이 끝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융통성 있게 대처하여 사무소에 기여하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난민법 문제는 다른 유엔난민기구 사무소에서 일하며 익히 접했지만, 무국적에 대한 일은 처음이었기에 흥미롭기도 했다. 유엔난민기구의 주 업무는 난민보호지만,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법률인 1954년 협약을 만드는 과정에 유엔난민기구가 깊이 관여했었고, 유엔총회가 유엔회원국에 유엔난민기구가 무국적의 감소와 예방에 관한 1961년 협약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적극 도움을 줄 것을 당부하는 결의안을 체결했기 때문에 무국적 역시 난민기구의 주요 사안이었다.

몬테네그로는 구 유고연방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4번이나 국가가 바뀌었고, 다른 구 유고연방 국가들과는 달리 이중국적을 엄격히 금지하는 제도를 고수하고 있었기에 무국적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다. 예전 구 유고연방 시대에는 국적 문제에 크게 관련이 없던 본적 주소가 현시대에는 국적을 배부하는 주요 근거로 자리 잡았고, 본적이 잘못 표기되어 있어서 그것을 정정하는 과정에 국적을 박탈당한 사람, 혹은 본적은 서류상으로만 적혀있었을 뿐 그곳에 아무런 연고가 없어서 갑자기 이사해서 먹고 살기 난감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며 국적이 없이 21세기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국적과 인간의 정체성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다. 책으로만 보서는 내부사정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구 유고연방 국가 간의 분쟁문제도 직접 그곳에서 살면서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체감하게 됐다.

나는 적극적으로 무국적 연구에 몰두했고, 이후 무국적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난민기구와 곧잘 협력해오던 몬테네그로 내무부 국적과와 난민과 직원들과 함께 그루지야의 유엔난민기구 사무소로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루지야 역시 구소련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무국적문제를 해결하는데 고군분투했었고, 지금은 효율적인 법률과 제도로 무국적자의 수를 크게 줄여나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몬테네그로 정부 직원들과 함께 좋은 현장 전문지식 또한 얻을 수 있었다.

3. 또 다른 무국적의 모습, 알바니아

무국적 연구가 마무리될 즈음, 몬테네그로는 새로운 정치 사회적 구도에 직면했다. 현지 사정으로 국적 문제를 선불리 다루기 힘든 시점이었다. 구 유고연방 문제는 우리나라 대북문제만큼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고, 그래서 정부와의 논의로 곧장 업무가 이어지기 힘들어 보였다. 무국적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한 후로는 남은 임기를 걱정했다. 난민 유입사태로 애초에 파견되었지만, 난민 유입이 정지되고 필요했던 연구도 끝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2017년 말까지 사무소를 대폭 축소해야 하는 사정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 수도 없었고, 남은 일거리는 현지어가 능통해야만 할 수 있는 것들뿐이었다. 이러다간 남은 4개월을 자습만 하며 끝낼 것 같았다.

근무사정이 불투명하니 나는 곧바로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와 연락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정리하고처럼 UNV에서 파견을 조기종료 시키지만, 나는 정부의 후원으로 1년간의 임기가 보장되어있는 상황에서 조기종료를 할 수 없었기에 유엔난민기구 및 UNV도 적극 내 사정을 고려해주었다. 나는 바로 옆 나라인 유엔난민기구 알바니아 사무소에 자리를 알아보았고, 마침 일손이 부족했던 알바니아 사무소에서 가능하다면 알바니아로 사람을 파견해달라는 소식이 들어왔다. 몬테네그로를 담당하는 주 세르비아대사관 분들도 난민 유입사태가 정지된 뒤의 현지사정을 국제기구 인사센터에 신속하게 보고해주셨다. 피치 못할 근무 사정을 고려해주신 국제기구 인사센터에서 유엔난민기구와 UNV에 파견지 변경을 승인했고, 덕분에 나는 예외적으로 파견지를 몬테네그로에서 알바니아로 바꾸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파견된 전문봉사단이 아닌 정부를 통해 파견된 전문봉사단이기엔 가능한 일이었다. 다시 생각해도 우리 정부 프로그램의 자국민 보호가 빛나던 순간이다. 물가가 낮은 알바니아에서 월급은 적어졌지만, 4개월을 의미 있게 보낸다는 것이 내게는 더 중요했다.

그리하여 7 월, 나는 몬테네그로의 집을 정리하고 알바니아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알바니아에서 내 업무는 완전히 무국적에 관한 것이었다. 도착하자마자 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알바니아는 구 유고연방 국가가 아니었기에 무국적 문제가 국가의 분열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새로운 상황이었고, 몬테네그로에서 배운 지식을 전혀 활용할 수 없었다. 알바니아의 무국적 문제는 주로 출생신고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는데, 여러 법률적 제도적 어려움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민등록이 실패해도 통계를 따로 두지 않는 시스템 때문에 무국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었다.

이렇게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알바니아의 이민율이 한몫한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기 전에는 마치 북한과 실상이 비슷했다던 알바니아. 1991 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폐쇄됐었던 국경이 열렸고, 1990 년대 내내 60-70 만에 달하는 기록적인 수의 알바니아인들이 알바니아를 빠져나왔다. 대부분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연합 선진국을 향한 이민이었다. 하지만 2010 년대에 이르러 유럽연합에 경제위기가 닥치고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많은 수의 알바니아인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돌아오는 알바니아인의 수가 급증했고, 여러 가지 제도적, 경제적 이유로 해외에서 미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던 부모들이 알바니아에 돌아오고 나서야 자녀의 주민등록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중 서류 미비나 경제적 이유로 출생신고를 마치지 못한 부모의 아이는 결국 법적으로 보이지 않는 무국적의 상태에 돌입하는 것이다.

알바니아의 일은 이론적으로도 실전에서 무척 어려웠지만, 나의 직속 상사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덕분에 많은 것을 이룩할 수 있었다. 현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알바니아의 주민등록부를 실패한 출생신고도 따로 기록할 수 있게 바꾸기로 했고, 이 협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나는 외교술을 비롯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동안 유엔난민기구에 일하면서 유엔의 역할에 대해 많이 고민했는데, 이만큼 유엔의 일원으로서 보람찬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알바니아 정부는 더욱 나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했고, 나는 그들과 일하는 내내 마음속 깊이 사명감을 느끼며 최대한 많은 시간을 좋은 법적 정책적 제안을 다듬는데 쏟았다. 짧은 임기 기간에 유엔난민기구 브뤼셀 법무팀 지부와 알바니아 사무소의 충분한 신뢰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4. 국제기구의 일원으로 일한다는 것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과정에는 사명감, 열정, 인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른다. 전기가 수시로 끊기는 알바니아의 집에서 밤늦게까지 촛불 켜고 야근한 게 이제는 좋은 추억이다. 나는 한 번도 몬테네그로나 알바니아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일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이제 두 나라 모두 내게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모든 임기를 마치고 알바니아를 떠나기 전에 정부 및 시민사회 인사와 작별인사를 하자 그들이 이별을 아쉬워하며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해주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알바니아에 와서 그들의 나라를 위해 힘써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했다. 이별이 아쉬워서 나도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발걸음을 떼기가 힘들었다. 나는 끝까지 알바니아가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고 국제사회의 힘찬 일원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우리나라 역시 전후에 국제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가 더 힘들었을 것이다. 이제는 강대국의 반열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유엔 및 국제기구라는 발판을 이용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때다.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큰 자부심이고 보람이다. 국제기구라는 존재가 막연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차곡차곡 준비해서 조금씩 경력을 쌓으며 다가가면 결코 사막 위의 신기루 같은 존재가 아니다. 국제기구 역시 여느 일터처럼 열정이 넘치는 삶의 현장이고, 실패와 노력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배워나가는 청년의 무대다. 나는 앞으로도 꿈을 이룰 때까지 계속 나아갈 것이다. 부디 나의 경험이 사명감과 열정을 가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끝/